아리랑축전 기념특집

민족의 노래에 비낀 조선의 어제와 오늘

10만명 출연자들이 펼쳐 보이는 대서사시적화폭

≪우리 민족력사에서 보기 드문 국보적인 명작, 세계적인 대걸작≫(로동신문)이 드디여 그 면모를 드러내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화창한 봄날 그 공연의 막이 올랐다. 평양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10만명출연자들이 펼쳐 보이는 황홀한 세계를 체험하였다.

눈물의 노래를 행복의 노래로

15만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평양 릉라도의 5.1경기장. 좌석을 꽉 메운 관객들의 기대와 흥분이 최고조에 이른다.

저녁 8시. 어둠속에 국부조명이 비치자 선창가수의 노래소리가 경기장에 메아리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고개를 넘어 간다≫

수난 많고 곡절 많던 민족의 력사가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률이 된듯 노래는 관객들의 마음을 파고 든다.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막을 올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조선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을 제목으로 한다. 아름답고 유순한 그러면서 처량하고 우아한 조선민족 고유의 정서가 흐르는 아리랑곡조가 조선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 보인다.

1장 ≪아리랑민족≫에서 그려 진 조선민족의 운명개척로정. 피눈물이 슴배인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이 흐르고 공연무대에서는 무용수들이 바람 부는 갈대숲과 망국노의 설음 안고 길을 헤매이는 백성들의 모습을 형상한다.

지난날 조선민족은 눈물속에 ≪아리랑≫을 부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한 노래나마 민족의 귀중한 노래여서 빼앗기지 않으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노래 부르며 항쟁의 불길을 지펴 올렸다. 민족의 문화를 꿋꿋이 지키고 끝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였고 외국세력의 지배와 압력을 물리치고 거듭되는 주권국가의 존엄을 지켜 왔다.

오늘은 옛노래 ≪아리랑≫도 눈물속에서가 아니라 슬기롭고 의지가 강한 조선민족의 긍지를 안고 부른다. 2장 ≪선군아리랑≫, 3장 ≪아리랑무지개≫ 그리고 4장 ≪통일아리랑≫은 그러한 강성민족의 보람에 찬 생활과 지향을 형상하였다.

거창하고 독창적인 형상수법

조선은 집단체조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아리랑≫공연은 그 주제에 걸맞게 종전에 써 온 창조의 틀거리와 형상수법도 대담하게 혁신했다.

각이한 체조대형들과 조형을 이루며 조선민족의 력사가 직관적으로 안겨 오도록 립체화, 률동화된 배경대가 형상되고 여기에 민족적색채가 짙은 음악과 무용이 배합된다. 그리고 각종 전광장치가 5.1경기장의 거대한 공간에 신비경을 연출한다.

3장 3경 ≪오직 한마음≫에서는 경기장변두리를 따라 전광가로수가 선다. 처음에는 록색 가로수가 가물거리며 점차 적색으로 교차된다. 가로수가 이동하여 경기장에 흰색에 가까운 가로수전경이 펼쳐 지니 평양의 야경이 나타난다. 출연자들이 전광가로수를 소도구마냥 들고 춤추고 있는것이다.

가로수는 또다시 꽃다발로 변화된다. 그 장면은 마치나 ≪아리랑≫ 공연관람을 위해 평양을 찾은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을 열렬히 환영하는것만 같다.

매 장면에 민족의 정서가 비낀 작품은 관객들에게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참모습을 전한다.

≪아리랑≫공연은 그 형상의 하나하나가 조선민족이 체험한 력사적사실과 폭넓고 깊이 있는 오늘의 생활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한 내용의 진실성이 형식의 독창성과 결합된것으로 하여 ≪아리랑≫은 거대한 위력을 가진 작품으로 완성되였다.

단결력이 낳은 걸작

동서랭전체제가 무너진 이후 국제정치의 주요무대의 하나로 부각된 조선,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는 미국과 치렬한 대결전을 벌리고 있는 조선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세계는 ≪아리랑≫공연을 통해 그 대답을 찾게 될것이다.

작품에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였지만 그뿐이 아니다. 10만명의 방대한 인원이 참가하는 체육예술적형상. 황홀경을 이루는 공연장면과 변화무쌍한 배경대가 펼쳐 보이는 작품은 조선에서만 가능한것이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관객들속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오르군 하였다. 수만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한 배경대를 그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영화의 화면처럼 보았을것이다. 서방나라에서는 한사람에게 백만금씩 준다 한들 실현 못할것이다.

≪아리랑≫공연은 조선의 단결력이 낳은 작품이다. 관객들은 1시간 20분의 공연시간에 조선이란 나라의 축도를 보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감정을 느끼게 된다.

지난날 외세에 의하여 리별의 눈물을 흘리며 류랑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민족이 이제는 하나로 뭉쳐 자부심에 넘쳐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작품이 아리랑곡조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철학은 심오하다.

종장 ≪강성부흥아리랑≫에서는 오늘의 조선인민이 부르는 또하나의 아리랑이 메아리친다.

≪무릉도원 꽃 펴 가니 흥이로다 아리랑 / 제 힘으로 가꿔 가니 멋이로다 아리랑≫

5.1경기장에 펼쳐 지는 환상과 같은 광경은 나라의 보다 큰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노래한 ≪강성부흥아리랑≫의 가사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보여 주는 진짜 현실이다.

조선신보 02/05/01

세계에 유례 없는 독특한 내용과 방식

조선의 집단체조 발전력사를 더듬다

4월말부터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조선에서 85번째가 되는 집단체조작품이다.

조선의 집단체조는 작품창작을 거듭하는 과정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특색 있는 집단체조로 발전하여 왔다.

조선의 집단체조가 걸어 온 길을 더듬어 본다.

주제, 사상을 갖춘 ≪작품≫으로

조선에서는 집단체조가 광복직후부터 중요한 기념일을 계기로 광범히 진행되여 왔다.

46년 5월에 진행된 ≪소년들의 련합체조≫로부터 올해 2월에 진행된 ≪선군의 기치 따라≫까지 84개의 작품이 창작되였으며 총 900여회에 걸쳐 상연(국가행사공연 200여회, 일반공연 약 700회), 연 1,600만명이 관람하였다.

집단체조창작단 송옥선자료실장(53살)은 ≪집단체조는 학생들의 건강문제와 집단주의교양에 유익하다는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하게는 직관성과 호소성이 높아 선전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널리 보급되였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식 집단체조는 단순한 체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마스껨이 체육적인 목적과 그 무슨 미(美)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 나라의 집단체조는 예술성과 함께 높은 사상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이 특징입니다. 즉 관람자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48년당시의 내외정세를 반영하여 ≪조선은 하나다≫(48년 10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49년 10월)라는 제목의 집단체조가 창작, 상연되였다. 인민들을 조국통일운동에로 불러 일으키는 내용으로 일관된 작품이였다. 이처럼 집단체조는 매시기마다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알리고 인민들을 그 관철에로 호소하는 내용으로 창작되였다

1930년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작, 지도하신 꽃체조 ≪조선의 자랑≫이 조선의 집단체조의 시원이라고 한다. 이 작품에도 전체 조선인민이 대동단결하여 조선의 독립을 이룩할것을 소리 높이 호소하는 종자가 담겨 져 있었다.

배경대와 체조대의 배합

배경대는 작품의 주제사상을 부각시키는데 큰 역할을 놀고 있다.

조선의 집단체조는 작품의 주제사상을 더욱 두드러 지고 정확히 나타낼수 있게 하는 배경대가 체조대와 배합을 이루고 있다.

집단체조에 배경대가 처음으로 도입된것은 55년, 세계적으로도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였다.

55년 8월에 진행된 첫 배경대도입작품인 ≪해방의 노래≫ 배경대에는 ≪배우자 단결하자≫, ≪경축8.15≫ 등의 글자가 새겨 졌다. 비록 글자만이였으나 이후 작품들에서 그림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집단체조는 장과 절로 나뉘여 진행되는 등의 발전단계를 거쳐 점차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속에서 61년 9월 ≪우리 식 집단체조의 원형≫으로 되는 작품이 등장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지도하신 첫 작품인 ≪로동당시대≫이다.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조대, 구호와 그림이 새겨 지는 배경대, 경쾌하고 힘 있는 음악이 하나의 주제사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였으며 규모와 형식에서도 획기적 전환을 이루었다.

이후 집단체조의 창작과 보급을 통일적으로 주관하는 집단체조창작단의 창립(71년 11월), 체조수들을 양성하는 전문학교인 집단체조구락부의 창립(83년 1월, 97년부터 청소년체육학교로 개칭)으로 조선의 집단체조는 내용과 형식이 성숙되여 가고 더욱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였다.

체육과 예술의 융합

2000년에 들어 새 형의 공연방식이 도입되였다. 그 첫선을 보인것이 10월 12일부터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다.

이 작품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란 형식으로 진행, 처음으로 체육과 예술이 융합되였다. 또한 낮이 아니라 저녁에 상연함으로써 조명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배경대를 거대한 환등막으로 리용하는 등 새로운 형식과 기술이 도입되였다. 출연자규모에 있어서도 10만명은 처음이다.

체조에 무용을 배합한 대표작은 2장 1경의 ≪시련의 파도를 헤치시며≫. 사나운 파도를 형상한 집단체조률동과 군인들이 붉은기를 추켜 들고 전진하는 춤률동을 배합한 장면은 장군님께서 준엄했던 시련을 맞받아 나가시여 승리를 안아 오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6년간의 나날을 단 10분의 장면으로 형상하였다.

이번에 상연되는 ≪아리랑≫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족적색채가 짙은 이 작품은 조선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도 한번 보면 다 알수 있는 작품으로, 조선민족의 통일열망을 고조시키는 작품으로 준비되고 있다.

주요작품

표기순서는 공연날자, 작품제목, 장소, 메모. 날자는 공개된 주요공연날자. ≪모란봉경기장≫은 확장공사가 끝난 1982년부터 ≪**김일성**경기장≫으로 개칭.

– 30년 11월 7일, 꽃체조 ≪조선의 자랑≫, 고유수삼강학교 운동장,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작지도. 조선의 집단체조의 시원

– 46년 5월 3일, ≪소년들의 련합체조≫, 평양시건설운동장, 조국해방후 처음 진행된 공연.

– 48년 10월 31일, ≪조선은 하나다≫, 모란봉경기장, 공화국창건을 경축하여 진행.

– 53년 9월 30일, ≪보병훈련체조≫, 모란봉경기장, 조국해방전쟁 발발로 4년간 중단후의 첫 공연.

– 55년 8월 16일, ≪해방의 노래≫, 모란봉경기장, 배경대를 도입한 첫 작품. 세계적으로도 처음되는 시도.

– 59년 8월 15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모란봉경기장, 장과 절로 나뉘여 진행된 첫 작품. 3개 장에 8개 절.

– 61년 5월 7일, ≪승리자의 명절≫, 함흥시경기장, 평양이외에서 처음으로 진행. 규모는 1만 1천여명.

– 61년 9월 19일, ≪로동당시대≫, 모란봉경기장, ≪우리 식 집단체조의 원형≫, **김정일**장군님께서 창작방향을 제시하시고 지도하신 첫 작품.

– 62년 2월 8일, ≪보천보홰불≫, 함경남도 장진군, 처음으로 진행된 스키집단체조.

– 62년 8월 27일, ≪바다는 청년들을 부른다≫, 함경남도 신포시, 처음으로 진행된 해상집단체조.

– 64년 10월 11일, ≪천리마조선≫, 모란봉경기장, 첫 인민상계관작품, 이후 6개 작품이 인민상계관작품으로.

– 82년 4월 16일,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김일성**경기장, 가장 많이 상연된 작품으로서 다음해 10월까지 45번 상연. 인민상계관작품.

– 89년 7월 2일, ≪오늘의 조선≫, **김일성**경기장,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자 관람. 공연회수는 27번.

– 92년 2월 16일, ≪영원히 당과 함께≫, 평양체육관, 첫 실내집단체조작품. 이후 98년까지 해마다 겨울에 진행.

– 93년 7월 27일, ≪우리는 승리하였다≫, 5월1일경기장, 5월1일경기장에서의 첫 작품. 경축야회형식으로 7만 6천명규모로 진행.

– 2000년 10월 12일,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5월1일경기장, 첫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배합. 첫 ≪**김일성**상≫계관작품.

조선의 전문가들 세계 각국에서 집단체조창작 지도방조, 총련에서도 공연

조선의 집단체조는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다. 하여 조선의 전문가들로부터 집단체조를 배우려는 나라들이 많다.

이제까지 중국, 꾸바, 몽골, 알제리, 캄보쟈, 네팔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조선의 집단체조전문가들의 지도방조를 받고 국가기념행사나 국제행사 개폐막식에서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도 65년 5월 총련결성 10돐을 기념하여 고마자와경기장에서 ≪조국에 드리는 노래≫가, 72년 4월 수령님 탄생 60돐을 경축하여 고마자와경기장에서 ≪수령님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가 각각 조국의 집단체조전문가들의 방조밑에 진행된 바가 있다.

조선에서는 집단체조전문가들을 64년부터 작년까지 48개 나라에 파견하여 지도방조하였다. 연 98차례가 된다.

그리고 집단체조 강습 및 실습으로 조선을 방문한 집단체조대표단은 13개 나라에서 27차례가 된다.

작년 가을에 조선을 방문한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주석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보고 2008년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올림픽대회를 념두에 두면서 조선의 집단체조전문가들의 방조를 받아야겠다고 말하였다.

강이룩기자
조선신보 02/03/20

아리랑의 어제와 오늘

한민족아리랑연합회 회원 최규명 / 구국의 소리 주체91, 6월 6일~7일

온 겨레, 온 인류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속에 드디어 이북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땅에도 하늘에도 황홀한 신비경을 펼쳐놓은 인류문명에 금문자로 특기할 세계적인 대걸작 ≪아리랑≫에 대한 반영을 들으면서 민족의 넋이 깃들어 있는 민요 아리랑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눈물의 아리랑

아리랑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처럼 하나로 이어져 있다. 우리 나라 민족음악사에 기록된 수많은 옛 민요들 중에는 ≪눈물 젖은 두만강≫, ≪황성옛터≫, ≪봉선화≫ 등을 비롯한 민족의 피눈물이 슴베인 노래들이 많다. 그런데 겨레의 정신을 가장 생동하고 통속적으로, 감정서사적으로 표현하는 역사의 기록이 다름아닌 민요인 것으로 볼때 아리랑은 그 대표적인 역사의 증견자라고 말할 수 있다. 지구촌의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민요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아리랑과 같이 거대한 역사적 폭과 심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민족의 운명문제를 담아온 노래는 일찍이 없다 하겠다. 민요 아리랑은 단순히 노래라기보다 민족의 상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민요 아리랑에는 민족적 감정과 정서가 짙게 어려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아리랑은 민족의 아름다운 정서와 넋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왔다. 우리 민족은 슬플때도 아리랑, 기쁠때도 아리랑, 아리랑따라 삼천리라 여러 갈래로 뻗어온 아리랑을 부르며 근면하고 화목하게 살아온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이다.

하건만 그토록 아름다운 우리의 아리랑에는 너무도 오랫동안 민족의 피눈물이 유일하게도 흘렀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고 울부짖던 민족의 눈물이 아리랑곡조에서 그대로 뚝뚝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정든 산천을 뒤에 남기고 살길을 찾아 타향만리를 떠날 때 우리 동포들이 목메어 불렀던 아리랑. 그 이름만 들어도 두고운 고향과 조국산천이 눈에 어려와 그리움속에 눈물로 밤을 지새던 우리 동포들이었다.

풍파 사나운 세월의 흐름에 부평초마냥 떠돌다 아리랑을 부르며 두만강건너 고향산천 하직하니 얼마이고 이역땅 한끝에 묻히면서도 넋이라도 조국에 묻어달라 소원한 이는 또 몇이던가. 눈 감으면 못견디게 안겨오는 어린 시절 뛰놀던 버들방천 시냇가. 어머니 손수 담그던 구수한 토장, 처마아래 드리웠던 빨간 고추들이며 온 집안이 둘러앉아 맛나게 먹던 시원한 김치깍두기. 천추에 잊으랴. 나라없던 수난의 그 시절을. 오랜 옛날 이별의 눈물속에 태어난 아리랑을 옛적의 더 피어린 망국노의 눈물속에 부르지 않으면 안되었던 곡절많은 운명의 수난기에 그나마 민족의 소중한 노래여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피를 토하면서도 아리랑을 부르던 이북의 다부적 극영화 ≪민족과 운명≫에서의 주인공 시인 이찬의 그 모습이 방불히 안겨온다.

붓을 들어 내 나라를 노래하자고 해도 노래할 제 나라를 잃었고 온 심혈을 다 쏟아 꽃피우자 해도 꽃피울 민족의 봄이 없었기에 붓대를 꺾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시인의 모습은 그대로 강도 일제에게 무참히 짓밟혔던 그 세월,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다.

개나리봇짐에 쪽박을 차고 조상대대의 유골이 묻혀 있는 정든 고향을 하직하고 기약없는 타향살이 넘고 넘으며 피눈물에 가슴을 움켜쥐고 부르고 불렀던 아리랑. 그 아리랑 메아리에 애국열사 안중근이 민족을 지켜주고 이끌어줄 영수를 목메어 찾으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던 모습. 이 나라 독립투사들의 외침이 그대로 어려있는 게 아닌가. 바로 이것이 조국이 없고 수령이 없어 수난당해온 민족의 역사가 그대로 비낀 민족의 아리랑이었다.

원수를 격멸시킨 아리랑

우리 민족은 아리랑을 부르며 눈물에 젖고 짓밟혀만 있지 않았다.

복수의 아리랑을 힘차게 부르며 원수격멸에로 떨쳐나선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김일성**주석의 영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간삼봉전투이다.

그 싸움에서 항일빨찌산 여대원들은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아리랑을 불렀다. 그 우렁찬 아리랑노랫소리에 원수들은 넋을 잃고 기절초풍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어 격전장에서 노래를 부른 것은 강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간삼봉전투에서 울려퍼진 아리랑은 혁명군의 정신적 동심을 비쳐보이고 낙천주의를 시위했다고 하셨다.

생사를 판가름하는 싸움터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고 승리의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격전장에서 아리랑을 부른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간삼봉전투에서 울린 아리랑은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민족의 역사와 전통도 살아 있으며 우리 민족은 자기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강남을 어서 가세.≫

달 밝은 밀영의 밤, 모닥불가에서 유격대원들과 함께 총가목을 가슴에 안고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주석께서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께서 부르시던 그리운 강남, 그 노래속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원수를 증오하는 적개심, 기필코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필승의 신념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어려 있은 것이 아니겠는가.

구성지게 부르시던 백두산장군의 유정한 노래는 그대로 빨찌산 아들의 심장속에 흘러든 민족의 피와 넋이었으며 원수들에게는 죽음이었다.

백두산 총대바람을 타고 흐르는 아리랑곡조는 어리신 **김정일**영수의 마음속에 간직된 아름다운 민요가락이었고 빨찌산들의 총가목에서 들썩거린 옹헤야춤이 그대로 장군의 가슴속에 새겨진 민족의 흥겨운 춤바람이었다. 아리랑은 이처럼 백두산3대장군의 사랑이며 넋이다.

백두산장군들의 그 아리랑곡조에 화답해서 겨레가 반일항전에 뛰어들었고 마침내 원수들을 굴복시켜 조국광복의 새 아침을 불러온 것이다.

생사를 판가름하는 격전장에서 아리랑이 울린 것은 그때만이 아니다. 지난 6.25전쟁시기 조선인민군 용사들은 1211고지 방어전투에서 **으로 화선악기를 만들어 화선악기 연주회를 열곤 했는데 그때 병사들이 연주한 민요 연작에서 첫번째 곡목은 언제나 아리랑이었다고 한다.

적들의 맹렬한 추격과 폭격으로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고 나무는 무득불 타버려 숨을 곳을 잃은 다람쥐가 병사들의 품에 뛰어들었다는 그 가열한 전투의 고지위에서 울리는 아리랑의 선율은 인민군 전투원들에게는 무적필승의 힘과 용기로 되었고 원수들에게는 공포와 죽음으로 되었다.

미제침략자들이 고지로 기어오르다가도 고지위에서 울리는 아리랑선율에 넋을 잃고 사지가 떨려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는 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전쟁의 일화는 간삼봉전투의 연속편이라 해야 할 것이다.

치열한 전쟁에서 울리는 아리랑의 전설과도 같은 그 신기한 영향력에 의해 당시 외국인들도 경탄했다고 한다. 그들은 전장에서 울리는 노래의 위력을 **김일성**주석의 천재적인 지략과 영군술에 시원을 둔바도 있다.

외국의 한 시인이 주체39(1950)년 11월에 창작한 자작시 ≪**김일성**장군≫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김일성**장군님께서 표식없는 보통 군복을 입으시고 전방부대에도 여러번 나타나셨다니. 곁에 있는 어느 중대에선 어느날 새벽 참호곁을 지나시며 외투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리랑을 부르시는 그분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노랫소리 비록 낮았지만 새벽바람에 전해지는 그 노래. 그 노래의 아름다운 ***이 어느 경지인지 똑똑히 들었다네.≫

세월의 반사이고 그의 반영인 노래의 위력은 대단하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아리랑과 같은 가요의 힘은 무한대하다. 일찍이 음악과 예술의 천재이신 **김정일**영수께서 노래는 물리적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뚫고 들어가 적들을 전율케하고 민중에게는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위력한 무기라고 하신 고귀한 말씀의 뜻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오늘 이북 민중은 노래로 시작한 혁명 노래로 완성하자며 원수격멸의 아리랑을 더욱 높이 부르면서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수며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차게 내닫고 있다.

행복과 희망의 아리랑

원한과 울분속에 민요들을 짓고 눈물속에 민족의 아리랑을 부르던 망국의 그런 세월은 이북에서 영영 끝나고 멀리 지나갔다. 오늘 이북 민중들은 커다란 민족적 자긍심을 안고 행복과 희망에 넘친 민족의 아리랑을 소리높이 부른다.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들썩하게 하며 태어난 이북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두고 우리 민중, 세인들이 그처럼 흥분하고 기뻐하고 격동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

가지고 싶다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민족적 자긍심이 아니다. 기쁨과 행복, 희망을 담아 부르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민족의 노래가 아니다. 영원한 민족의 노래. 영원한 민족적 자긍심은 그것을 지켜주고 내세워주고 꽃피워주는 위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아리랑을 두고 무한한 민족적 자긍심에 넘쳐 미래를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애국애족의 화신이신 **김정일**영수께서 온 겨레에게 행복과 희망의 아리랑노래를 안겨주시고 영원히 울려퍼질 수 있게 해주신데 있다.

백년전의 조선에서는 눈물의 아리랑이 고랑되어 흘렀다면 백년후에 오늘의 이북에서는 행복의 아리랑이 창공을 가득 채우며 끝없이 울려퍼지고 있다.

민족의 아리랑은 서도아리랑에서 강원도아리랑에로, 정선아리랑에서 진도아리랑에로, 밀양아리랑에서 영천아리랑에로 가지가지 많이도 뻗으며 발전해왔다. 허나 음악사적 견지에서 봐도 그렇고 민족사적 견지에서 봐도 그렇고 ≪강성부흥아리랑≫, ≪군민아리랑≫ 등 그전과는 전혀 다른 뜻과 양상을 가진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새 시대의 아리랑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대걸작이 탄생하게 된 오늘의 이북의 현실은 민족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고 있음을 실증해주었다.

반만년역사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위대한 수령을 모시어 20세기 민족의 운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위대한 장군

을 모시어 21세기 민족의 운명에서는 또다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21세기 새 아리랑은 자주정신, 민족의 존엄이 세계 만방에 드날리는 오늘의 **김정일**시대의 새로운 송가이다. 오늘 이북땅위에 민족이 수수천년 살아오면서 꿈꾸던 자주의 세상, 민족의 존엄이 현실로 활짝 꽃펴난 이 땅의 현실은 *********눈물속의 아리랑이 흥겨운 아리랑의 닐리리 옹헤야 장단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북 민중들처럼 하루를 살아도 세상에 대고 하고픈 소리를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참된 낙이고 희열이다. 한가지 일을 해도 이 땅에 꽃피는 애국의 현실을 보며 달러에 명줄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북처럼 제 힘을 믿고 자기식으로 새것을 창조하면서 떳떳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돋보이고 부러운 것인가. ***살아가던,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기 배짱대로 결심한 일을 척척 해나가는 이북 민중의 마음은 얼마나 **하고 그들은 얼마나 사는 멋이 있는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포위속에서도 제 할 소리, 제 할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그 어떤 초대국도 쩔쩔 매게 만드는 이북의 통쾌한 현실은 흘러온 역사의 체험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무너져 내렸을 것이지만 이북 민중은 고난을

딛고 일어나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과시하며 21세기 중심에 승리자로 우뚝 올라서 아리랑곡장단을 꽝꽝 두드리는 장쾌한 현실이 불과 7년사이에 전환된 이 거대한 운명발전은 상상도 못할 역사의 기적이 아닐수 없다. 결국 피눈물의 바다위에서 ≪강성부흥아리랑≫이 태어났다.

아리랑의 새 역사는 백두산에서 시작되였고 ≪강성부흥아리랑≫은 **김정일**영수께서 진두에서 겪으시고 이끄신 고난의 행군길에서 태어났다. 흥겨운 아리랑곡조에는 역사의 광풍을 맞받아 나가신 **김정일**영수의 탁월한 선군정치, 선군영장의 자랑찬 역사가 어려 있다.

민족의 새 아리랑, 참으로 그것은 고난을 함께 헤쳐온 이북의 군민에게 **김정일**영수께서 안겨주신 사랑의 선물이자 세계에서 또다시 빛이 꺼질뻔 했던 민족의 명백을 굳건히 이어주신 전설적 영웅이신 **김정일**영수께 민중이 드리는 감사의 송가인 것이다.

어제날에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으나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지 못해 오늘은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민족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북은 어제날의 슬픔의 노래를 오늘만이 아닌 내일의 영원한 승리의 노래, 행복의 노래로 만들었다.

우리의 선조들이 수난많던 그 시절 하늘에서 귀인이 내리기를 천추고대하며 불러온 아리랑이었지만 오늘은 수령복, 장군복, 위인복을 만난 민족의 자긍심을 담아 민족의 새 아리랑, 민족제일주의아리랑, 행복과 희망의 아리랑을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소리높이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두번 다시 도탄에 빠질뻔한 민족, 두번 다시 눈물의 아리랑에 잠길뻔한 민족, 두번 다시 노예로 살뻔한 민족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김정일**영수의 덕택이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오늘의 우리 민족처럼 행복과 희망의 아리랑을 그렇게도 긍지높이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는 민족은 없다.

* * *

우리 민족의 존엄과 행복은 영원히 담보되어 있다. 그야말로 아리랑풍년이 드는 민족적 사변의 영마루위에 우리 세대가 서 있다. 아리랑은 민족대단결의 송가. 아리랑을 부르면서 민족의 넋을 가다듬고 아리랑을 부르면서 민족의 혈맥을 이어왔고 아리랑을 부르면서 고유한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빛내어온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 세상천지에 흩어졌다가도 아리랑으로 굳게 뭉칠 수 있는 것이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의 특별한 민족성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통일세력들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서 아리랑이 울려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없애보려고 어제도 책동했고 오늘도 발악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리랑의 메아리는 더욱 세차게 울려퍼질 것이며 이 땅위에는 마침내 통일의 아리랑이 펼쳐지고야 말것이다.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진로를 밝힌 새 세기의 대걸작

노동신문 글 - 주체91, 7월 19일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펼쳐 지는 력사의 새 시대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명작을 낳는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의 기치 따라 승리의 신심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다.

우리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 없는 위대한 선군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은 끝이 없다.

한 나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 나고 선군시대의 한복판에서 민족의 존엄이 만방에 힘 있게 과시되고 있는 자랑찬 현실은 그에 맞는 시대의 명작을 낳고 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바로 새 세기를 대표하는 선군시대의 특출한 명작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위대한 령장이 높이 추켜 드신 선군의 기치따라 주체의 강성대국을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세워 나가는 김일성민족의 영웅적기상과 불굴의 투지를 긍지높이 보여 주고 있는 세계적인 대걸작이며 위대한 선군시대가 낳은 ≪아리랑≫식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탄생을 긍지높이 선언한 인류문화예술의 귀중한 재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같은 새 세기를 대표하는 훌륭한 창조물이 나온것은 세상에 자랑할만한 일입니다.≫

지난 4월 2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연을 친히 보아 주시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작품은 완전무결하게 성공한 작품이며 바늘구멍만한 틈도 없는 완성된 만점짜리작품이라는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시고 세계적인 대걸작을 창조한 한 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거둔 특출한 사상예술적성과에 대하여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 대한 력사적인 총화작이다. 작품은 아리랑민족의 어제와 오늘을 통하여 민족운명개척의 진로를 깨닫게 하는 명실공히 혁명투쟁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인간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 자주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1900년대로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옹근 한세기를 포괄하는 우리 민족의 력사를 통하여 그에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다. 다시말하여 우리 인민이 어제도 오늘도 사랑하며 널리 부르고 있는 민요 ≪아리랑≫을 형상의 중심에 세우고 비탄의 아리랑소리 구슬피 울리던 내 조국땅에 어떻게 되여 강성부흥의 아리랑소리가 높이 울리게 되였는가를 사상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함으로써 민족의 운명문제에서 자주성이 생명으로 된다는 진리를 힘 있게 확증해 주고 있다.

작품에 관통되여 있는 기본주제는 ≪아리랑≫을 통하여 본 조선민족의 자주적인 운명개척문제이다.

사람들은 서장의 배경에 붉은 태양이 솟아 오르면서 ≪아리랑≫이라는 제명이 새겨 질 때 흥분된 심정을 걷잡지 못해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어제날의 수난사와 오늘날의 번영사를 제명 ≪아리랑≫이 한순간에 직감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제명 ≪아리랑≫은 벌써 민족의 운명개척의 진로를 밝힐수 있는 사상적, 정서적, 생활적바탕을 그대로 안고 있다. 그러한것으로 하여 작품의 창작과 창조의 기초, 출발점으로 되고 있다.

≪아리랑≫은 조선사람이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백의민족의 상징마냥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민요이다.

성부와 리랑의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민화로 전하며 ≪아리랑≫이 이 땅에 울린 때로부터 오랜 세월, 이 한편의 민요에는 우리 민족의 파란만장의 수난사가 그대로 비껴 있다. 우리 인민이 지난 날 자신들의 불우한 운명을 개탄하며 슬픔에 잠겨 부르기도 하고 자기들의 운명이 구원될 래일을 갈망하여 애절하게 부르기도 해온 대표적인 민요가 ≪아리랑≫이다.

참으로 오늘의 시대에 와서 돌이켜 보면 ≪아리랑≫은 한편의 민요이기에 앞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운명사를 전하는 대명사로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겨 져 있다.

오랜 세월 인민들속에서 구전되여 오면서 공고화된 노래의 민족적감정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 비탄의 감정속에 불리워 오던 ≪아리랑≫이 오늘의 선군시대에 와서 ≪강성부흥아리랑≫으로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비애와 탄식의 감정이 환희와 행복의 감정으로, 수난과 절망의 비극적인 정서가 부흥과 락관의 랑만적인 정서로 전환되여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이룩되였다.

하다면 수백년 세월 불리워 온 비탄의 아리랑이 강성부흥의 아리랑으로 높이 울려 퍼지게 된 이 엄연한 력사적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바로 그 위대한 전환의 비결을 우리 시대의 대걸작,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밝혀 주고 있다.

작품에서 보여 주는바와 같이 살래야 살길이 없어 정든 고향과 조국산천을 떠나가는 우리 인민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기만 하다. 바닥을 꽉 채운 갈대정들의 쓸쓸한 설레임, 배경대의 대형영사막에 비쳐 진 두만강물우에 뜬 나루배에 몸을 실은 류랑민들의 처량한 모습, 조상의 뼈가 묻혀 있는 조국땅을 떠날수가 없어 나루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녀인,

특히 작품의 앞부분에서 울리는 민요 ≪아리랑≫의 곡조는 수난 당한 민족의 피 타는 절규마냥 관중들의 가슴속에 파고 든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는 애절한 구절은 사랑하는 님만이 아닌 정든 고향과 조국을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짓밟힌 민족의 원성으로,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 당한 불우한 운명의 수난자들의 곡성으로 울리고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 외세와 매국노들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자주성이 유린 당할때 민족에게 차례지는것은 불행과 죽음밖에 없으며 수난 당한 민족의 가슴속에선 언제나 비애와 수심, 비탄의 아리랑곡조밖에 울려 나올수 없다는 철리를 예술적화폭으로 확증해 주고 있다.

작품의 감화력은 자주성이 유린된 민족의 불우한 운명을 진실하게 밝혀 낸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령도 따라 혁명투쟁의 길에 떨쳐 나설 때 꺼져 가던 민족의 운명도 구원되고 조국의 광복도 성취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꽃 피울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밝히고 있는것으로 하여 그 감화력을 비상히 높이고 있다.

≪조선의 별≫장면에서 새별이 서서히 올라 가면서 봉화대에 불을 지피게 한것은 참으로 깊은 뜻을 새겨 주는 예술적형상이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체육문화행사나 대공연들에서는 봉화대에 불을 지피는 의식과 형상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한다. 그것은 그 행사들과 대공연의 시작을 알리면서 작품의 주제와 성격을 첫 시작부터 두드러지게 강조해 주기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서 캄캄한 밤하늘에 새별이 밝은 빛을 뿌리다가 서서히 오르면서 봉화대에 불을 지피게 한것은 지난 시기와 달리 해당 장면이 안고 있는 사상주제적과제에 봉화라는 형식을 잘 복종시켜 부각시킴으로써 완전히 성공한 훌륭한 예술형상으로 되였다.

작품에서는 이 장면의 독특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신데 대하여 형상적으로 력점을 찍어 훌륭히 부각시키고 있다.

봉화대에서 불길이 세차게 솟구쳐 오르는 순간 배경대의 전폭에 불길이 형상되여 이글거리고 바닥에서 홰불춤이 기백 있게 펼쳐 지는 장면은 보면 볼수록 흥분에 휩싸이게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진리성을 뜨겁게 새겨 안게 한다.

이어 ≪사향가≫의 절절한 노래속에 조국땅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들

이 진달래꽃을 들고 춤 추는 환희로운 모습이 펼쳐 지고 다시 노래 ≪빛나는 조국≫이 숭엄하게 울려 퍼지면서 바닥을 꽉 채운 진달래꽃정들이 순간에 삼색춤으로 변하면서 람홍색공화국기가 휘날리게 할 때 관중들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내 조국을 찾아 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과 함께 외세에 짓밟혀 신음하던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주시고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해 주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칭송으로 가슴 들먹이게 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이러한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한 나라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구원하고 개척하자면 반드시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나가야 한다는것을 우리 혁명의 피어린 력사를 통하여 힘 있게 확증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이번 대공연이 가지는 명작으로서의 높은 지위와 품격의 하나가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기초하고 있는 총대철학이 훌륭히 구현된 21세기의 본보기작품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총대철학에 기초한 선군정치야말로 자기 나라를 굳건히 보위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정치방식이라는것은 온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력사의 엄연한 사실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화폭을 통하여 우리 총대의 력사적뿌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적감화력을 높이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남녀취주악대의 대행진이 펼쳐 지는 속에 배경대에 새겨 지는 두자루의 권총, 불타는 강을 건느는 인민군용사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이러한 화폭들은 관중들에게 우리 총대의 력사적뿌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넘겨 받으신 유산인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되였으며 깊은 뿌리에서 억세게 자라난 우리의 혁명무력이 있어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낼수 있었다는것을 긍지높이 보여 주고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전반에 관통되여 있는 기본사상은 내 조국땅에 강성부흥의 아리랑소리 높이 울리자면 선군아리랑소리를 높이 울려야 하며 선군아리랑소리 높이 울리는 곳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가 있다는것이다.

강성부흥아리랑소리 높이 울리자면 반드시 선군아리랑소리가 높이 울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오는 과정에 체득한 혁명투쟁의 고귀한 진리이다.

작품에서 보여 주는바와 같이 배경대에 형상된 깊은 밤 흰 눈 덮인 령길로 달리는 야전승용차의 불빛, 이 밤도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가 하늘의 둥근 달도 유난히 밝은 빛을 뿌리고 바닥의 눈정들도 고요히 설레이는 서정 깊은 형상, 합창대에서 울리는 노래 ≪내 조국의 밝은 달아≫의 심원한 음악세계는 관중들로 하여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끊임없이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며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으로 지켜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받아 안게 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아래 승승장구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과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필연성을 힘 있게 확증하고 있는 시대의 기념비적걸작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 세기적인 변혁이 이룩되고 강성대국건설의 휘황찬란한 래일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생동한 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 주는 공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관중들의 심금을 틀어 잡고 놓을줄 모르며 그들을 깊은 정서세계에 빠져 들게 한다.

이 땅우에 토지정리의 새 력사가 펼쳐 져 올망졸망하던 뙈기포전들이 사회주의토지답게 시원히 정리되고 조국의 산과 들에 염소를 비롯한 집짐승떼가 흐르며 가는 곳마다 현대화된 닭공장과 메기공장들이 일떠서 고기와 알이 흐뭇하게 쏟아 져 내리는 모습,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과학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가 실현되여 가는 모습을 보며 관중들은 멀지 않은 앞날에 강성대국의 찬란한 현실을 안아 올 락관과 확신으로 가슴 벅차오름을 금치 못한다.

특히 바닥에서는 인민군대의 기상과 담력을 과시하는 일당백군인들의 창격전을 보여 주고 공중에서는 육탄용사들로 준비된 녀성군인들의 락하모습이 펼쳐 질 때 배경대에 새겨 진 어머니가 귀여운 아기를 품에 안고 기쁨에 겨워 있는 화폭은 우리 군대야말로 정의의 군대, 자위의 군대이며 인민의 행복과 사회주의전취물을 지켜 싸우는 인민의 군대임을 생동한 형상으로 인상 깊게 보여 주고 있다.

실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오늘의 현대사를 주도하는 선군정치의 위력을 힘 있게 과시하면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우리 군대는 백전백승을 떨치는 세계적인 강군이며 우리 인민은 무적의 총대를 앞세우고 강성대국의 빛나는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혁명적인 인민이라는것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바로 여기에 이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세계적인 대걸작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선군아리랑소리 높이 울려야 조국통일아리랑소리도 더 높이 울릴수 있고 민족의 숙원이 하루빨리 실현될수 있다는 진리를 확증한 명작이다.

작품은 민족도 피줄도 땅도 언어도 문화도 력사도 하나인 조선민족은 둘이 되면 못 살고 둘이 합치면 더 큰 하나로 되여 태양민족으로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아 갈수 있다는 사상을 대예술적화폭속에서 힘 있게 강조하고 있다.

제4장 ≪통일아리랑≫에서 울리는 ≪아리랑≫의 노래소리, 그것은 민족분렬의 가슴 아픈 현실이 새 세기의 오늘에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절규하는 피 타는 목소리로 울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무용수들이 통일된 하나의 조선지도를 형상하는 순간 관중들의 가슴에 차고 넘치는 환희와 기쁨, 그것은 우리 인민의 뜨겁고 열렬한 통일지향에 대한 예술적축도이다.

이 장면에서 힘차게 울리는 노래 ≪우리는 하나≫는 조선의 영구분렬을 획책하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에 철추를 내리며 동포들이 조국통일3대헌장과 6. 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반드시 하나된 태양민족을 이루려는 열망으로 가슴 불타게 한다.

작품은 이와 같이 둘이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된다는 심오한 사상으로 조국통일위업성취에로 온 민족을 힘 있게 고무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명작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서는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감동 깊은 형상을 통해서도 관중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 주고 있다.

참으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고 해도, 강성대국건설은 물론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자고 해도 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시고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밝혀 주고 있는것으로 하여 비상한 견인력과 정서적감화력을 가진다. 이처럼 선군이 없으면 우리 민족의 운명도 없고 사회주의도, 강성대국도 없다는것을 확증한 여기에 이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새 세기의 대걸작, 새 시대의 본보기작품으로 될수 있은 중요한 비결이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밑에 21세기에 들어 서서 ≪아리랑≫식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창작의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긍지높이 펼친 새 세기의 대표적인 명작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주체의 집단체조의 창작성과와 예술공연의 창작성과가 집대성되여 정화된 고귀한 창조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지도밑에 지난 세기 70년대에 벌써 문학예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영화와 가극, 연극과 음악무용, 교예, 미술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들에서 일대 전성기가 마련되였다.

그 과정에 대공연창작분야에서는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를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대걸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으며 집단체조창작에서도 주체적인 집단체조창작리론이 구현된 시대의 기념비적집단체조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과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비롯한 주요한 국제국내행사때에 그것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새로운 형식으로 발전되면서 자기 발전의 뚜렷한 자욱을 남기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세심한 지도밑에 새 세기에 들어 서서 ≪아리랑≫식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탄생이 온 세상에 긍지높이 선포된것은 인류문화발전에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갻아리랑갻이 그처럼 천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완전무결하게 성공한 작품, 세계적인 명작으로 될수 있은것은 민족의 운명문제와 같은 심오한 사상주제적내용을 황홀경의 최절정을 이룬 흠 잡을데 없는 완벽한 예술형상으로 깊이 있게 밝혀 냈기때문이다.

이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처럼 방대한 시대적인 폭을 가진 한 민족의 력사를 그처럼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최상의 예술적경지에서 성공시킨 그러한 례는 일찌기 없었다. 그러면서도 이번처럼 사상이 직선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높은 예술적형상속에 완결된 그러한 작품은 찾아 보기 드물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창조하려면 체조률동은 물론 음악, 무용, 교예 그리고 배경대미술과 무대장치, 조명 등 실로 수많은 형상수단들이 적용된다. 이렇듯 복잡한 형상수단과 요소들이 완벽한 형상적조화를 이루게 해야 작품창조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수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그처럼 수많은 형상수단들이 마치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마냥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번 작품에서는 그 어느 한 형상수단이나 세부를 들어 내여도 전반적인 형상적의도가 통채로 허물어 지게 되여 있어 조금도 다칠수 없게 빈틈없이 서로 맞물려 져 있다.

제2장 ≪선군아리랑≫의 형상창조만 놓고 보아도 1경 ≪내 조국의 밝은 달아≫에서 눈정과 물결정의 우아하고 정서 깊은 무용률동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전선시찰장면을 보여 주고 2경 ≪활짝 웃어라≫에서 노래 ≪장군님과 아이들≫이 울리는 속에 어린이들의 귀여운 동심적인 체조률동으로 선군정치의 은정속에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마음껏 펼치였다. 3경 ≪내 나라 북소리≫에서는 박력 있는 곤봉예술체조와 공예술체조를 펼치며 천지개벽된 사회주의농촌의 토지정리모습을 가슴 후련히 보여 주고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탈춤형식의 하나인 집짐승가면무가 상모춤과 배합되여 펼쳐 지면서 온 나라에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이 일떠서고 있는 자랑찬 현실을 보여 주다가 다시 교예종목들과 함께 륜예술체조와 정구채체육무용, 탄력망체조, 평행봉, 안마운동과 사다리조형들로 과학기술발전의 긍지로운 모습들을 훌륭히 보여 주었다.

이처럼 한개의 장에만도 특색 있는 무용률동과 체조률동, 합창과 관현악, 교예종목이 있으며 황홀한 무대장치와 대형영사 및 환등장면 등이 있다. 이러한 형상수단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빈틈없이 맞물려 져 있다. 이와 같은 수많은 형상수단들중에서 그 어느 한 부분만 들어 내여도 바닥과 배경대, 음악과 률동, 무대장치와 조명 등이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해명하는데 손상을 주면서 형상적으로 결합이 이루어 질수 없게 되여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형식에서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형상적으로 결합시키는 문제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창작실천상의 문제로 나서고 있다.

이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완전히 결합시키여 전혀 새로운 형상의 세계를 펼친 새 시대의 본보기작품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주체적집단체조창작리론은 집단체조를 예술화하지 말고 자기의 체조적특성을 옳게 살릴데 대하여 밝혀 주고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형식의 작품창작에서 박력 있고 기백 넘친 체조적특성을 옳게 살리고 우아하고 정서 깊은 예술공연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형상으로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할 때 집단체조도 아니고 예술공연도 아닌 범벅식작품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체조률동이 매우 특색있게 창조되였다.

다채로운 기재들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새로운 기법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체조률동은 볼수록 기백 넘친다.

≪더 높이 더 빨리≫장면에서 학생들이 5층탑을 쌓는 모습과 그 맨 우에 올라 서는 학생들의 뛰여 난 기교는 물론이고 ≪활짝 웃어라≫장면에서 민족의상을 화려하게 차려 입고 재치 있는 솜씨로 줄넘기를 하는 어린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어린이들의 세련된 체조기량은 실로 집단체조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체조률동이 기백과 열정에 넘쳐 활력을 부어 주었다면 무용률동들은 우아하고 정서에 넘친 환희의 감정을 한껏 돋구어 주고 있다. 무용형상에서 해살정이 갈대정으로, 진달래꽃정이 삼색정으로, 눈정이 물결정으로 순간에 바뀌여 지면서 장면들을 이채롭게 부각시키는 형상도 황홀하지만 새로운 맛이 나게 형상한 교예종목들과 민족적색채가 짙은 가면무와 상모춤이 또한 흥취를 한껏 돋구어 준다. 특히 무대에 농악무를 크게 펼치고 소상모, 중상모, 열두발상모춤을 추는 흥겨운 모습은 상모춤을 장려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의도를 공연무대에 잘 반영한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장과 경들에서 독립적인 체조률동과 무용률동으로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체조률동과 무용률동을 조화롭게 결합시켜 동시에 펼치기도 하며 작품의 감정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형상은 ≪아리랑≫식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서 바닥률동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 준 본보기로 되고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형상에서 바늘구멍만한 틈도 없이 완성된 만점짜리대걸작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는 옹근 한세기에 달하는 우리 민족의 력사가 담겨 져 있다. 한개의 대공연작품에서 그리도 넓은 시대적인 폭을 가진 민족의 운명사를 형상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100여년에 달하는 한 나라 민족운명의 수난사와 번영사를 영화나 소설로 옮긴다고 해도 수백수천편에 담고도 모자랄것이다.

하지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선군시대를 중심에 세우고 형상의 집약화, 집중화수법을 성공시킴으로써 우리 당의 력사와 결부하여 민족운명개척의 진로를 밝힌 명작으로서의 지위와 품격을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

이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작품은 서장과 종장을 제외하고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여 있다. 공연시간은 1시간반 남짓하다. 하지만 몇개 되지 않는 장으로 길지 않은 그 시간에 옹근 한세기에 달하는 우리 민족의 력사와 그 교훈을 통채로 받아 안게 된다. 마치도 공연에는 10만명이 출연하지만 한세기의 장구한 세월에 산 민족성원전체가 공연무대에 등장하여 자기의 생활을 펼치는듯 한 강렬한 인상을 준다. 작품의 갈피갈피마다에서 아리랑민족의 력사의 발자욱들이 력력히 찍혀 있는 가지가지의 생활들을 방불히 보는듯 한 느낌을 받아 안게 된다.

하다면 비할바없이 훌륭한 공연의 예술적전형화는 어떻게 실현되였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압축하여 형상의 집약화, 집중화를 매우 높은 수준에서 보장했기때문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장, 경마다 초점을 바로 잡고 거기에 형상을 집중함으로써 마치도 주인공의 운명선을 따라 극이 펼쳐 지는듯 한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작품의 세계에 빠져 들게 하고 있다. 그로 하여 대서사시적작품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게 되고 감탄의 환호를 터치게 되면서 작품의 심원한 세계에 관중들이 깊이 잠겨 들게 하고 있다.

공연의 서장에서 붉은 태양이 솟아 오르면서 제명이 새겨 지는 장면과 두만강나루터장면에서 녀인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장면, 새별이 솟아 올라 봉화에 불을 지피는 장면, ≪사향가≫의 울림속에 백두밀림이 흘러 가게 한 장면, 창격전을 끝낸 인민군군인들이 바다의 중심에 대형최고사령관기를 펼치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장면 등 수많은 인상 깊은 장면들은 서사적인 설명이 없이도 지나온 우리 민족의 력사와 오늘의 시대적감정을 뜨겁게 절감하게 하고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음악극작술은 매우 독창적이다.

작품에서 민요 ≪아리랑≫은 서장에서와 제4장 ≪통일아리랑≫대목에서 다시한번 울린것밖에는 더는 없다. 그러나 관중들은 공연시작부터 마감장면까지 ≪아리랑≫곡조속에 잠기여 공연을 보는듯 한 인상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각이한 력사적시대들에 창작된 노래들을 장면마다에 울리게 하는것은 방대한 시대적폭을 가지고 민족의 력사를 서사적화폭으로 펼쳐 보이는 작품에서 적용되는 수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음악에서는 그 일반적인 상례를 따르지 않고 음악의 종목편성과 음악극조직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해결하였다.

이번 공연에서 울린 노래들은 민요 ≪아리랑≫과 비가 ≪눈물 젖은 두만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와 그 이후에 창작된 명곡들이다. 서장에서 울린 민요 ≪아리랑≫과 제1장 1경에서 울린 비가 ≪눈물 젖은 두만강≫은 당대의 시대적감정을 두드러지게 부각시켰다. 그러면서도 노래를 철저히 우리 식으로 불러 우리 인민에게 친근감이 안겨오게 하였다.

특히 우리 시대의 명곡들인 ≪내 조국의 밝은 달아≫, ≪오직 한마음≫, ≪우리는 하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음악의 기둥노래들로서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부각시키고 작품의 전반적예술성을 높이는데서 큰 작용을 하였다. 노래 ≪내 조국의 밝은 달아≫는 깊은 정서속에 밤이나 낮이나 쉬임없이 머나먼 최전연초소와 북방의 산촌마을로 이어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에 대하여 칭송하였다면 ≪오직 한마음≫에서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어버이수령님을 못 잊어 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기어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 가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심정을 터치였고 ≪우리는 하나≫에서는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드팀 없는 신념과 의지를 음악형상적으로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이처럼 우리 시대에 창작된 명곡들을 기본축으로 세우고 지난 시기에 창작된 노래를 배합하여 음악극작술을 창조한 여기에 이번 공연의 음악형상적특성이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창조에서 배경대는 바닥에 펼쳐 지는 체조와 무용의 률동, 여러가지 조형들과 련결되면서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해명하여 주는 기본형상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배경대의 역할을 부단히 높이고 새로운 직관예술적형상을 창조하는 문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창조에서 언제나 선차적인 과제로 나선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배경대는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한껏 부각시키면서 형상의 집약화, 집중화를 실현하는데서 큰 작용을 한 직관예술의 신비로운 모습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의 배경대는 너비가 180메터나 되고 높이는 35메터나 된다. 이러한 특대형배경대는 두개의 문주사이에 독자적인 무대적효과를 나타내면서 살아 움직이는듯 한 직관적예술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근 2만명이나 되는 학생소년들이 배경그림책을 펼치며 진행하는 배경대형상은 정적인 화폭과 동적인 화폭을 순식간에 자유자재로 전환하는가 하면 그림에서 글발로, 글발에서 그림으로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이번 배경대형상에서는 대형영사 및 환등막도 훌륭히 활용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흰색바탕의 배경그림책으로 대형영사막을 형성했다면 이번에는 가로 배렬된 줄별로 180메터길이의 영사막을 설치하고 그것을 순간에 들어 올리게 함으로써 흠 잡을데없는 멋쟁이대형영사 및 환등막이 되게 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새 세기 명작으로서의 높은 형상수준을 과시하고 있는데는 민족적색채가 짙은 무대장치와 첨단과학기술이 도입된 조명과 대형영사 및 환등이 적극 활용되고 있기때문이다.

지난 시기와는 달리 이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무대는 바닥과 배경대, 합창대와 관현악단, 경기장상공의 전광꽃등 등이 하나의 조화를 이룬 대규모의 로천무대로 되고 있다. 이것으로 하여 관중들은 공연을 관람하면서 경기장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극장에서 공연을 보는듯 한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된다. 바닥에서 이동식공기방석무대가 자유로이 움직여 가고 하늘높이 전광꽃등이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명멸하는가 하면 배경대앞의 대형그림막이 오르내리는 속에 하늘에서는 선녀선남이 내리고 육탄용사들과 교예배우들이 훨훨 날으게 하는 립체적인 무대장치와 효과는 저도 모르게 그 황홀감에 탄성을 올리게 한다.

공연을 황홀하고 신비롭게 장식하는데서 전광장치와 레이자조명은 큰 몫을 담당수행하고 있다. 특히 레이자조명의 특수효과는 의의 있는 장면마다에서 감미로운 색채를 더해 주고 있다. 배경대에 가축들을 특색 있게 형상한 레이자조명수법들은 우리 무대조명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느끼게 한다.

실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새 세기에 우리 민족이 세상에 높이 자랑 떨친 주체문화예술의 대성공작으로서 후세에 길이 전해 갈 인류공동의 문화재보로 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주체조선에서만 창조할수 있는 세계적인 걸작이다.

공연을 본 관중들이 하나와 같이 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시고 일심단결된 조선에서만 실현할수 있는 인류사적인 창조물이라고 격찬해마지 않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소규모의 예술공연을 준비하자고 해도 많은 품이 드는데 하물며 10만명이나 되는 방대한 인원들을 동원하여 종합적인 대규모의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펼친다는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근 2만명이나 되는 배경대인원이 한사람도 순간적인 실수없이 콤퓨터를 조작하는듯이 움직이고 드넓은 경기장바닥을 꽉 채운 률동성원과 관현악의 안삼불을 맞추고 바닥과 배경대의 형상의 일치를 보장하면서 수백개의 조명장치들을 자기의 계기에 맞추어 비쳐 주어야 하는것과 같은 창조사업은 강한 조직력과 단결력, 고도의 집단주의를 발양하지 않고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보면 볼수록 우리의 예술인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단결력이 있고 규률이 강한 부대라는 자부심과 함께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으로 가슴 후더워 진다.

고상하고 황홀한 예술의 신비경속에 원자탄보다도 더 위력한 주체조선의 힘을 느끼게 하고 김일성민족의 기상이 하늘끝에 닿게 하는 세계적걸작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웨치고 싶다.

이번 공연의 위력이자 곧 천하제일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위력, 우리 사상의 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이라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조선문화예술의 대표작으로, 세계적인 대걸작으로 완성될수 있은것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창작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21세기에 들어 서서 처음으로 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인것만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창작집단이 작품의 사상적대와 구성을 세우는데서 방향을 옳게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제명을 ≪아리랑≫으로 하며 시대적인 폭을 1900년대로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옹근 한세기의 민족의 력사를 취급할데 대하여서와 민족의 운명문제를 우리 당의 력사와 결부하여 풀어 나갈데 대하여서도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널리 불러 온 한곡의 민요를 가지고 옹근 한세기를 포괄하는 민족의 운명사를 보여 주는 세계적걸작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완성하도록 하신것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은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품창작과정을 자주 료해하시면서 새로 창작한 명곡들도 수시로 내려 보내주시고 세부형상에 이르는 문제들까지 일일이 깨우쳐 주시였다.

절세의 위인을 모신 주체의 조국에서는 세상을 놀래우는 명작이 태여나기마련이다.

하기에 세계의 신문, 방송, 통신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창작완성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하여 전례없이 광고하면서 요란하게 대서특필하였다.

하나의 작품이 이처럼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천만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면서 영원히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겨 준 그러한 례는 일찌기 없었다. 동서고금에 이번처럼 세상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끌어 잡아 당기며 세상천지를 뒤흔들어 놓은 문화예술사적사변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지 못하면 일생의 한이 되고 한번 보면 두번세번 다시 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한것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실 때 인간이 창조할수 있는 예술의 높이가 과연 어떤 경지에까지 오를수 있고 그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를 현실로 보여 주면서 인류문명의 최절정을 빛나게 장식해 주었다. 우리 인민은 새 세기의 첫 벽두에 벌써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득한 높이에로 치달아 오른 우리 문화예술의 참모습을 긍지높이 보여 주면서 새 세기에 펼쳐 나갈 휘황한 전망을 확신성 있게 내다 볼수 있게 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위대한 선군시대와 더불어 세상만방에 주체문화예술만세의 통장훈을 크게 불렀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같은 세계적인 대걸작을 창조한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세계적인 대걸작을 창조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것은 우리 조선사람들이 얼마나 강하며 문명한 인민인가를 유감없이 과시한 일대 사변으로 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선군의 기치아래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영웅적인 투쟁과 위훈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며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